

무주반딧불축제, 우리 손으로!

분야별 종사자 등 2백여명 참석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0일 전문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축제 개요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광환 부의장,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김인환 센터장을 비롯한 분야별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마음을 다해, 배려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나갈 것 등을 다짐했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매해 참여하다보니 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마음도 들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반딧불축제의 전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일들을 해내겠다고 결심해주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군민들의 참여,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에 한 우리 군의 노력이 올해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고 대표축제를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0일 전문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들은 썬캡, 귀반사 등 전문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행사장 운영과 주변 청소, 안내, 프로그램 진행 등 14개 분야에서 연 인원 1,200여 명이 중시할 예정이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김인환 센터장은 "실버태권도봉사단을 비롯해 관내 17개 단체에서 귀한 시간과 마음을 모아 주셨다"라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분들이 안전하게

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반딧불의 꿈 산골 생태도시 무주 이야기"를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생태거리예술제'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활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 인기

진안군, 전화상담으로 민원 신속 처리

진안군은 자체 시책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생활 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가칭 민원119)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활 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통의 전화로 신고·접수하면 전문상담원이 즉시 답변하거나 담당 처리부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원스톱 전화상담 서비스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 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총 18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공공민원 144건, 생활민원 31건, 법적민원 13건을 처리했으며, 지역별로는 진안 관내 145건, 전북도내 24건, 타시도 19건, 가로등

고장신고 및 하천제방 보수사업 민원, 홍삼축제 안내 등 다양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주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진안읍 은천마을 전병식이장은 "마을에서 나오는 폐가전제품 수거 방법이나 가로등 고장신고 등 모든 마을의 불편한 사항을 전화한통으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 마을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생활공공서비스 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하고 맞춤형 상담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2019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0일 군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장을 비롯한 강은희 군의회부의장, 이기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진안군청청소년홍삼특공대의 홍삼축제 송을 활용한 환경운동 시연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축제 진행 전반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는 성인봉사자 100명과 청소년봉사자 150명, 진안군청청소년홍삼특공대 40명 등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축제기간 내내 신속하고 열정적인 봉사활동과 축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진안홍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원동력이 우리 자원봉사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홍삼축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진안을 찾는 방문객들과 군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내년도 농촌진흥사업 국비확보 쟁결음

황인홍 군수, 농진청장 만나 고랭지 딸기 묘 생산 등 13억원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9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황 군수는 이날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김경규 청장을 만났으며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비 13억원을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사업들은 '사계절 딸기 및 고랭지 딸기 묘 생산 사업(국비 9억 원)'과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 조성 사업(국비 10억 원)', '농업인 교육장 외벽 보수·보강 사업(국비 3억 원)' 등 3건으로, '사계절 딸기 및 고랭지 딸기 묘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딸기 육묘에 최적화된 무주가 고랭지 기후특성을 활용해 우량 딸기 묘를 생산하고 전국으로 보급해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비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사업'은 중소과, 곱질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천도복숭아(설홍)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고랭지 기후와 지형의 무주가 살길은 건강한 농업을 일구는 길"이라며 "무주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한 만큼 든든한 국비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8월 31일 개막을 앞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관심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무주가 고랭지 특성을 잘 살려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무주군의 특성과 경쟁력을 토대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돼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성사업'은 중소과, 곱질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천도복숭아(설홍)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고랭지 기후와 지형의 무주가 살길은 건강한 농업을 일구는 길"이라며 "무주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한 만큼 든든한 국비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8월 31일 개막을 앞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관심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무주가 고랭지 특성을 잘 살려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무주군의 특성과 경쟁력을 토대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돼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친절콘서트 개최

2019 무주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는 2019 친절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는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행복한 조직 만들기를 비롯한 친절에 대한 강연, 그리고 팸플라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보며 행정과 주민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뻐했다"라며 "오늘의 화두였던 '친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의 차이를 공유하고, 또 '친절'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날 공연은 무주군청 민원실이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서고 마음으로 섬기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맥락에서 기획한 것으로, 기존의 일방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호순 과장은 "주민들에게 감동은 주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각도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민원실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주 찾아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SFTS 감염병 예방 긴급 대책회의

진안군은 지난 16일 관내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양성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SFTS 감염병 관련 부서와 읍·면장, 보건기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드기 감염병의 감염 경로와 쯤쯤가무시·SFTS의 증상 등 치료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히 지난해 전국 쯤쯤가무시증 환자 6,688명 중 사망 5명으로 사망률이 0.07%인 반면 SFTS 환자는 259명 중 사망 47명으로 사망률이 18.1%로 높은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난 만큼 신속한 치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현재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 전역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장수군은 오는 9월 6~8일까지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는 참가자들이 사과의 에어바운스 안에 금반지 및 경품을 표시한 칩을 넣어놓은 토마토를 으깨며 경품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경품으로는 황금반지 1돈과 반돈, 각종 농·특산물 등 다양한 경품이

숨겨져 있으며 지급받은 티셔츠를 입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료는 5,000원이다. 프로그램 운영회수는 7~9일까지 총 4회로 1일 2회씩(1차 13:00·2차 16:00)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 (<http://www.jangsupfestival.c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외에도 군포나르기, 사과낚시, 수상자전거, 사과 떼메지기, 물고기 잡기, 사과볼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육성축제로 지정되는 등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제에는 방문객 32만명, 행사장 판매액 30억원 등 경제효과 112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